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일시_ 2021. 11. 10(수) 14:00

장소_ 온라인 생중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프로그램



▶ 사회_ 하형석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시간	내용
13:30 ~ 14:00	등록 (온라인 접속)
	개 회
14:00 ~ 14:10	개 회 사 : 김현철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말씀 : 김경선 차관 (여성가족부)
	주제발표
14:10 ~ 14:30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동향 소수연 연구부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30 ~ 14:40	휴식 및 라운드 테이블 준비
	라운드테이블
14:40 ~ 15:40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좌장 유성렬 교수 (백석대학교) 패널 김 민 교수 (순천향대학교) 조아미 교수 (명지대학교) 최연수 상임이사 (한빛청소년재단) 최후남 센터장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40 ~ 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목 차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동향 3

소수연 연구부장_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 심리사회적 양극화, K자형 회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17
김민 교수_ 순천향대학교

-
-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21
조아미 교수_ 명지대학교

-
- 디지털을 활용한 은둔 청소년의 발굴에서 자립까지의 성장과정 사례 23
최연수 상임이사_ 한빛청소년재단

-
- 뉴노멀 시대 고위기청소년 관리 시스템 및 비대면 상담 환경 구축 29
최후남 센터장_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동향

소수연 연구부장_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동향

소수연

(상담복지연구부 부장, 심리학 박사)



- 01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향
- 02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
- 03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향



청소년
MZ세대
이해
및
참여

메타버스

넷마블 X BTS
Meta X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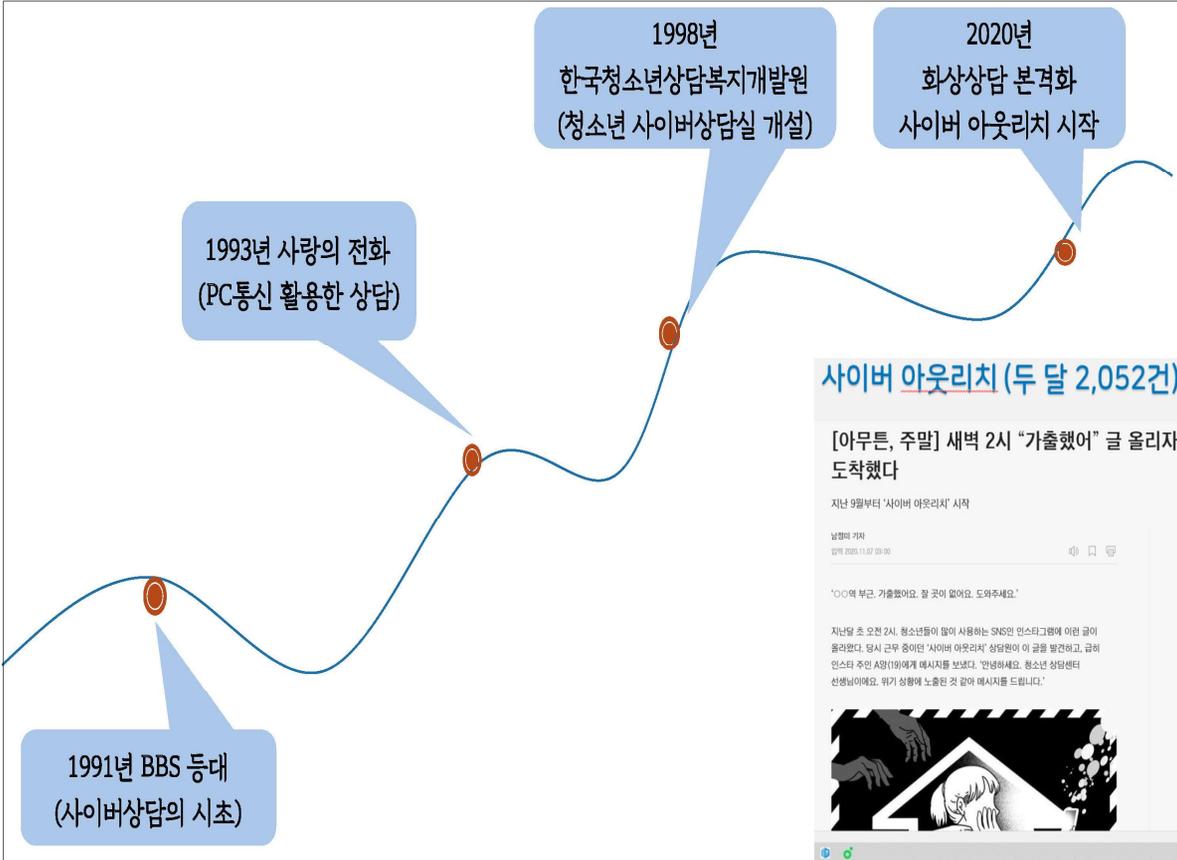


상담 현장은?



APA(미국심리학회)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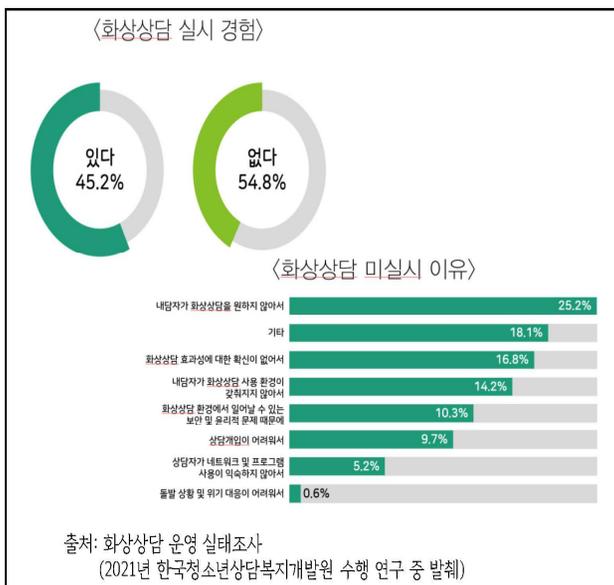


화상상담

-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얼굴을 마주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으로 정의(소수연 등, 2020)
 - 대면상담과 가장 유사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담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담 방법 중 하나임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rueth et al., 2007; Germain et al., 2010; Tuerk et al., 2010), 사회불안장애(Yuen et al., 2010), 광장공포증이 동반된 공황장애(Bouchard et al., 2004), 강박장애(Himle et al., 2006), 청소년과 아동의 우울증(Pesama et al., 2004) 등에 대면상담만큼 효과적이며, 만족도 높음
- 상담의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청소년 상담, 부모상담·교육에 효과적이며 적용 가능성 높음
 - 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외교포 청소년 상담, MBTI를 활용한 자녀 이해 부모 교육 등
- 해외: (미국) BetterHelp(비대면상담, 심리교육 세미나), Talkspace(집단상담, 문자상담, 전화상담, 화상상담) (영국) Ieso(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CBT 제공, 국가의료체제와 연계해 채팅상담 제공)

화상상담: 상담자와 내담자의 경험

- 청소년은 상담자에 비해 화상상담에 대한 거부감이나 기기 사용에 대한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청소년상담자**의 화상상담 개입 능력, 기기 및 IT 사용 능력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역량** 필요



"확실히 청소년에게 화상으로 대화하고 소통 하는 것이 낯설지 않다. 먼저 상담자가 화상상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관계 형성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 센터의 경우, 화상상담 키트를 제작해 내담자에게 접수 면접 시 제공한다. 이미지 책, 써잇 심기 키트 등을 가지고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활동 하면서 관계형성을 촉진한다. 활동 경험을 나누고 이것이 다음 상담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3월 화상상담을 처음 시작했던 때보다 11월에 상담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비대면으로는 관계형성이 어렵다', '상담자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다'는 생각은 핑계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변화하는 상담환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유튜브만 만큼 화상상담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화상상담이 상담 개입방법 중 하나가 되고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담자A

"화상상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하러 가는 거리가 좀 있어서 번거롭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나가 편하게 빨리 상담 마치고 시간 맞춰 학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편리하고 좋았어요. 직접 만나서 상담하지 못해도 화면으로도 만나면 친근감도 느껴지고, 어쨌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겠지만, 바쁠 때는 화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C

출처: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비대면 시대, 청소년 화상상담 경험과 발전방향' (2020, 통권4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 2000년대 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처음 소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개입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
 -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PTSD 위험에 노출된 대상에게 개입 치료(Difede, & Hoffman, 2002)
 - 이스라엘 버스 자살 폭탄테러 생존자의 PTSD 증상 완화(Josman et., 2006)
 -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PTSD 경험자 치료(Beck et., 2007)
- 노출치료를 활용한 **공포증 치료**
 - 비행공포증(Rothbaum, smith, Hodges, Price, & Lee, 2000)
 - 사회공포증(Yuen et., 2013)
- 그밖에 취업상담에서 **모의면접 상황**에 적용

Web, APP을 활용한 셀프 헬프 서비스(Self Help Service)

• 우울증, 마음챙김 등 치료의 장벽 줄이고, 휴대기기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Web 프로그램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으로 개발

• 국내

- 서울시 마음터치(<https://blutouch.net/>): 인지행동치료

기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관리 프로그램



- 국가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 프로그램 APP



- 마보(mabo):

마음챙김 명상 APP



마보를 이용해 보세요

마보 앱을 다운로드하고 7일만 해도 무료!

지금 시작하기

•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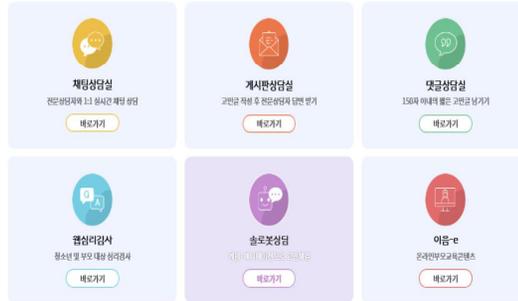
- Woebot(인지행동치료 기반 상담 챗봇), SimCoach(VR 상담봇), Headspace, Calm(마음챙김 명상 APP)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내담자 문제해결을 위해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조언을 공하거나 내담자의 정서, 사고, 행동상의 변화과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상담'

•사이버상담 유형

- 채팅상담
- 문자상담
- 이메일상담
- 게시판상담
- 사이버 아웃리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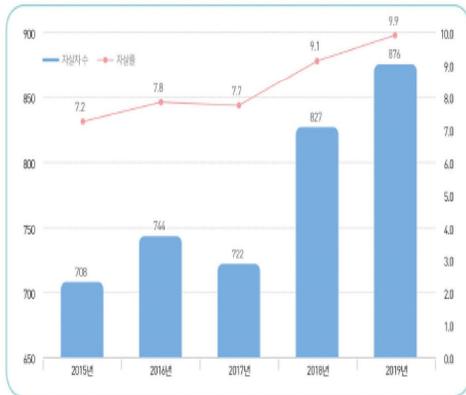
- 각종 심리 상담뿐 아니라 심리검사, 심리 및 정신건강 정보,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년대비 이용실적 30.5% 증가(약 32만건)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 청소년 자살률 지속 증가

[그림 10] 2015~2019년 청소년(9~24세) 자살 현황 추이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출처: 통계청, 2015~2019년 사망원인통계]

• 코로나 19 장기화로 청소년 불안·우울 심화

- 고립, 외출 자제 등 일상의 변화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경험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11.2%가 중등도 이상 불안 위험군, 14.2%가 중등도 이상 우울 위험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 13-18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48.2% 증가 (여성가족부, 2021)
- 청소년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요인 : 대인관계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 일상생활 관리 어려움, 감염에 대한 두려움 (서미, 2021)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2020년, 갑작스런 일상 생활의 변화로 스트레스와 또래관계 단절로 인한 불안, 우울감 경험
- 2021년,
 - 일관성 없는 등교, 사회 활동 위축, 일상생활 제약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경험
 - 통제 불가능, 예측 불가능, 종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안 높음
 - 단절된 생활의 지속은 대인관계 결핍(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 소외, 외로움, 고립감 증대
 - 코로나의 확산을 반영한 감염 공포,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의심, 타인에 대한 분노 높음
 - 특히, 여자청소년,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과 코로나 스트레스 심각

<출처: 이슈페이퍼 2호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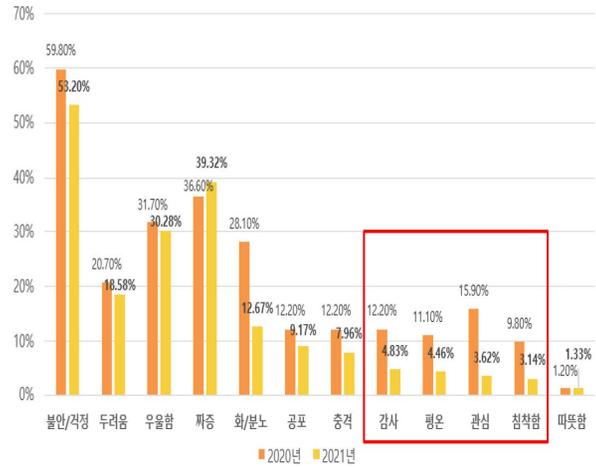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코로나 이후 가장 힘든 점 (2020, 2021)



■ 감정 (2020, 2021)



<출처: 이슈페이퍼 2호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 현황>

<코로나 전후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가족 영역>

단위: 건(%)

구분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진로	가족
코로나 이전 (A) (18년~19년1분기)	77,563	68,990	43,466	33,964
코로나 이후 (B) (20년~21년1분기)	138,566	73,023	52,373	57,911
증감 (B-A)	61,003 (78.6)	4,033 (5.8)	8,907 (20.5)	23,947 (70.5)

*출처: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대인관계 문제

•코로나 19로 사회성 발달 저해

- 단절 및 결손 트라우마 (김현수, 2020)
 - : 단절로 인한 친구관계, 외로움, 고독, 소속감 결여
 - : 사회성 발달에서의 관계 경험 결손
- 또래 관계 경험이 성장과 탐색의 기회 확대, 사회정서 발달, 정체성 확립에 주요 역할
- 사회적 격리(social isolation)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발생 (Brooks, et al., 2020)

<출처: 온라인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다'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그밖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

•청소년 미디어 중독 심화 및 신체발달 저해

- 신체활동이 줄고 미디어 사용 시간 증가 (Chen, Mao, Nassis, Harmer, Ainsworth, & Li, 2020)
-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식사로 체중 증가 및 성장기 골격과 심폐기능 저하 초래 (Rundle, Park, Herbstman, Kinsey, & Wang, 2020)

•취약 청소년 문제 심화

-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 학습권 침해 및 아동 정신건강 문제 등 발생,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의 피해가 큼' (Viner, et al., 2020)
- 계층 간 격차 심화: 돌봄 공백, 학습 격차, 문화 격차 발생

•가족갈등 심화

-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 심화
- 자녀의 생활관리 어려움, 부모-자녀 간 접촉 시간 증가 등으로 갈등 증가
- 학대 문제 등 역기능적 가족관계 악화

<출처: 온라인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다'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

•코로나 이후,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요
비대면에 익숙해진 탓에 대면해서 사람들을 만났을때
얼굴도 굳고 긴장을 하게 되는거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워보고싶네요”

“코로나가 끝난 후 집단 만들기 활동 등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적인 정서지원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직접 상대의 표정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
배울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이 문제라는 뉴스를 봤어요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좋겠어요”

“코로나 19 이후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저에겐 편안하게 **기댈수 있고**
제 마음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니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의 심리와 정서를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관련 추적 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선제적 대응
- 청소년 사회성 발달, 통제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 가능한 스트레스 대처 개입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대상 코로나 스트레스 진단 척도 개발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2021)
- 자살·자해, 불안·우울 등 고위험 청소년 문제 개입 체계 강화
 - :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지역사회 내 고위험 청소년 발굴 및 집중 관리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운영(2021)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개입 강화
 - : 청소년·부모·지도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과학기술과 결합한 상담 방법 및 대면·비대면 혼합형 지원 정책 필요

-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 및 대상자 다양화를 위해 IT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공적 서비스 체계 구축
 - :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제공, 화상상담 전용 플랫폼 구축, 심리 프로그램 APP 개발 등
- 청소년지도자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화상상담 운영 모형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예정(2021)
- 화상상담 윤리 등 디지털 기반의 상담 윤리 방안 및 상담자 보호 방안 마련
- 대면상담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비대면 상담 개입 방안 마련(예, 은둔형 외톨이, 도서산간 청소년 등)
-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 부모교육 확대

•청소년과 협력하여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안 마련

- 상담복지 주요 대상자인 MZ세대 특성 이해 필요
- SNS 활용 등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방안 적극 발굴 및 시도
 -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참고문헌

- 서미(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정서 개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온라인 포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다' 자료집.
- 소수연, 백정원, 김신아, 이지선, 김혜영(2020). 화상상담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동훈, 김주연, 김진주(2015). 온라인 심리치료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543-58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비대면 시대 청소년 화상상담 경험과 발전방향.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제4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코로나19 이후 1년, 청소년 정신건강 변화 기록.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제2호.
- 황매향, 황희산(2020). 테크놀로지 기반 상담 실제의 도전과 과제. 상담학연구, 21(4), 219-245.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좌장

유성렬 교수_ 백석대학교

패널

김민 교수 (순천향대학교)

조아미 교수 (명지대학교)

최연수 상임이사 (한빛청소년재단)

최후남 센터장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측은 공통되는 의견이자 현상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인의 이동제한, 소비심리의 위축, 조업 생산량의 급감에 따라 세계 경제는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5%p 낮은 -2.6%p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실제 성장률은 -3.2%p로 더 낮아진 것으로 보고 되어졌습니다, 아래 표 참조). 국내경제 역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실질 GDP 0.51~1.02%p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률은 -0.9%p를 기록해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IMF, 2021). 하지만 전체 시장은 확실히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훨씬 가중되어졌고, 기업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며,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기불황 및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라 작금의 현실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표〉 IMF 2021~202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2021년 7월 기준)

(단위 : %, %p)

경제성장률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4월 (A)	2021년 7월 (B)	조정폭 (B-A)	2021년 4월 (C)	2021년 7월 (D)	조정폭 (D-C)
세계	-3.2	6.0	6.0	0.0	4.4	4.9	0.5
선진국 (소비자물가)	-4.6 (0.7)	5.1 (1.6)	5.6 (2.4)	0.5 (0.8)	3.6 (1.7)	4.4 (2.1)	0.8 (0.4)
미국	-3.5	6.4	7.0	0.6	3.5	4.9	1.4
유로존	-6.5	4.4	4.6	0.2	3.8	4.3	0.5
독일	-4.8	3.6	3.6	0.0	3.4	4.1	0.7
프랑스	-8.0	5.8	5.8	0.0	4.2	4.2	0.0
이탈리아	-8.9	4.2	4.9	0.7	3.6	4.2	0.6
스페인	-10.8	6.4	6.2	△0.2	4.7	5.8	1.1
일본	-4.7	3.3	2.8	△0.5	2.5	3.0	0.5
영국	-9.8	5.3	7.0	1.7	5.1	4.8	△0.3
캐나다	-5.3	5.0	6.3	1.3	4.7	4.5	△0.2
기타 선진국	-2.0	4.4	4.9	0.5	3.4	3.6	0.2
한국	-0.9	3.6	4.3	0.7	2.8	3.4	0.6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2.1 (5.1)	6.7 (4.9)	6.3 (5.4)	△0.4 (0.5)	5.0 (4.4)	5.2 (4.7)	0.2 (0.3)
중국	2.3	8.4	8.1	△0.3	5.6	5.7	0.1
인도	-7.3	12.5	9.5	△3.0	6.9	8.5	1.6
러시아	-3.0	3.8	4.4	0.6	3.8	3.1	△0.7
브라질	-4.1	3.7	5.3	1.6	2.6	1.9	△0.7
멕시코	-8.3	5.0	6.3	1.3	3.0	4.2	1.2
사우디	-4.1	2.9	2.4	△0.5	4.0	4.8	0.8
남아공	-7.0	3.1	4.0	0.9	2.0	2.2	0.2

※ 출처: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p.6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세대별로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청년 포함)의 위기 역시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4대 권리별로 보면,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를 통한 2차감염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생존권과 보호권), 교육을 포함하여 성장시기에 마땅히 가져야 할 체험의 기회를 잃는 '성장경험 상실의 세대'가 되었고(발달권), 다양한 학교활동 및 청소년활동 위축에 따른 참여권조차도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Ontact 문화 확산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활동의 보편화에 따라 정보환경 비대칭에 따른 차별(특히 빈곤청소년, 장애아동 및 청소년, 도서벽지 청소년이 그렇습니다)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와 배제, 차별의 사회적 분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차적, 이차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일상적 삶과 사회적 관계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높아질 것이란 경고도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Human Right Watch, 2020.5.).

사실 이런 시선을 세계로 넓혀보면 그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 세계 아동의 약 77%가 코로나19 예방책이 부족한 132개국에 살고 있는 등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은 실질적 위협이 성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학력 격차를 보면, 지난해 4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1백5십만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아이들이 전체 학생 중 ¼이었습니다(UN.5.12).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고통인 아이들, 즉 고립과 단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욱이 보호자나 친권자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받는 아동도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¹⁾ 학력격차도 고민스러운 문제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교사들 중 60.4%는 코로나 이전세대보다 학력격차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²⁾(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한동안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이 지속될텐데, 과연 우리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한다 해도 우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윌리엄 앤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 & Mary) 경제학 교수인 피터 앳워터(Peter Atwater)는 회복한다 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급격한 반등 회복이 있고 다른 일부들에게는 계속된 하락이 있다면서 회복의 형태를 K자형 회복(K-shaped recovery)³⁾으로 불렀습니다. 즉, 양극화에 따라 상층 계층의 사람은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동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침체가 더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임금이나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다른 형태의 경제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한국 경제가 K자형 회복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영세기업과 블루칼라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1) 아동은 가족 갈등 및 학대와 폭력의 최대 피해자이며 이중 ¾은 심리적 공격과 체벌 둘 다 경험하는 아이라는 보고와 함께 방과후 돌봄 없이 나홀로인 아이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돌봄의 공백: 맞벌이가구 49.4%, 외벌이가구, 21.2%, 아동권리보장원, 2020).

2) 올해 4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를 전후한 서울시내 382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3년간 추적한 중단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후 학력격차를 처음으로 분석한 연구인데,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짐작한 바와 같이 중위권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3) 엄밀히 말해 K자형 회복은 실물경제는 얼어붙는데 반해 자산의 가격과 가치는 상승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용어는 경제학에서만 통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영향은 사회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 그 영향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심리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고 더 심각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부디 그런 논의로 진화되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이 처해 있는 삶의 위기, 그 실태를 촘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엄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그에 합당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과제를 여기에 오신 모든 기관과 사람들이 함께 짚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울러 표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양극화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누어 볼 때 국가별로도 K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지원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선행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은 비단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만은 아니란 점, 그점만은 꼭 상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윤나, 이희연(2020). 코로나 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와 청소년보호정책적 함의. **청소년보호연구**, 33 (2). 2-27.
- 박선영(2020).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청소년활동연구**, 6 (4). 173-194.
- 서울교육정책연구소 (2021).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차 실태 분석. 서울특별시교육청.
-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아동권리보장원.
-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 (4). 59-90.
- 통계청(2020). **미래인구 추이**. 통계청.
- 현진희, 김석주, 김희국, 백종우, 손선주, 이소희, 이종선, 최윤경 외(2021). 2021년도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 Jiao, W.Y., Wang, L.N., Fang, S.F., and Jiao F.Y., Pettoello-Mantovani, M., & Somekh, E. (2020).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during the COVID 19 Epidemic. *The Journal of Pediatrics* 221 : 264-266.
- Human Right Watch (2020). *COVID 19 and Children Rights*. Retrieved Octorbor, 22, 2021 from Human Right Watch Web site.
- IMF. (2021.7.). World Economic Outlook. from IMF Web Site
- OECD (2018). *OECD 2030 Education Report*. OECD.
- UN (2020). Brief Paper: *The Impact of COVID 19 Pandemic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Retrieved October, 20, 2021 from UN Web Site
- UNICEF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 19 on Children*. Retrived October, 15, 2021 from UNICEF Web Site.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토론문 제목: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소속 명지대학교

성명 조 아 미

코로나 19가 처음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선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을 보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언제부터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워드 코로나가 뉴노멀이라고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19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코로나와 함께 하는 것이 뉴노멀이 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즈음에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동향”은 매우 시의적절한 발표라고 본다.

발표내용은 1.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향, 2.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 3.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전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것은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낸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한편, 토론자로서 몇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MZ세대가 아니라 Z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요즘 MZ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발표자가 제시한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에서도 상담복지 주요 대상자인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MZ세대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말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한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2010년 정도를 아우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10세부터 40세까지가 포함된다. 이들을 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MZ세대가 아니라 Z세대이고, 이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2.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정책제안을 한다.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은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정책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제언에 제시된 내용 중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통제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 가능한 스트레스 개입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2021년 보급할 예정이므로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 과학기술과 결합한 상담방법은 지금 테크놀로지가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너무 빨리 달라지는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하고 윤리적 문제나 사회구성원의 합의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제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한다면 효율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나 발표내용은 주제와 달리 코로나 기간의 청소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인관계 문제, 그밖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청소년 미디어 중독 심화 및 신체발달 저해, 취약 청소년 문제 심화, 가족갈등 심화)는 코로나 이후 해결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 어떤 경우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각각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 가장 심각해서 우선 순위 다뤄야 하는 청소년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4.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자도 과학기술과 결합한 상담방법, 과학기술을 접목한 공적 서비스 체계 구축 등 테크놀로지를 상담현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토론자도 테크놀로지를 상담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단기적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분야의 융합이다. 청소년 전문가와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함께 청소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이다. 이 부분은 발표자가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언급하여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으나 과학기술을 상담복지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5. 상담정책과 복지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제시된 뉴노멀 시대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제언에는 주로 상담정책이 담겨져 있다. 복지와 관련된 것은 그밖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 중에서 취약 청소년 문제 심화 정도가 있다. 여기가 상담정책만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담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이 두 정책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져서 상담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표자도 언급한 것처럼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의 문제를 복지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토론문 제목: 디지털을 활용한 은둔 청소년의 발굴에서 자립까지의 성장과정 사례

소속 한빛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성명 최연수

(사)한빛청소년재단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상담-교육-자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캠프카이동 상담소유레카를 통해 2021년 발굴되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송파구(미래교육센터오금 허브)-송파꿈드림센터-IT/디지털 중소기업(피아이디스커버)-한빛청소년재단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KOTRA주관 B2B 무역플랫폼 정비사업에 연계되어 안정적인 자립의 과정에 진입한 은둔경험 후기청소년 L군(21)과 K군(28)의 성장사례를 통한 대안을 나누고자 함.

□ 청년디지털일자리 추진 배경

- ◆ (비대면 디지털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
- ◆ (디지털 전문인력 부족 & 청년 실업 문제 동시 심각) 디지털 일자리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추진 중이고, 대면 경제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청년 실업 증가와 디지털 전문가의 심각한 부족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속

1) 외부 환경 변화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디지털전환 분위기 조성
- COVID-19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산업을 중심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 급증
 - 디지털 일자리 부족 등 디지털대전환 과정에서 다수 일자리 기회 포착

2) 내부이슈

- 대학비진학 고졸검정고시를 마친후 취업좌절로 장기 은둔진입 증가
 - 폐쇄적이지 않고 자신의 장래를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환경구축필요
-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 문제
 -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스킬이 부족

□ 성장사례 후기청소년 소개

이름	성별	연령	학력	문제행동 영역	환경적 영역
L군	남	21세	고등검정고시	•은둔형 외톨이 •지적장애 3급 •게임중독	•구조적결손 •빈곤
K군	남	28세	고등검정고시	•은둔형 외톨이 •게임중독	•구조적결손 •빈곤

□ 발굴과정

1) 은둔형 후기청소년으로의 유입

- L군과 K군 모두 고등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직을 시도하였으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간혹 고된 노동력을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일거리만 구할수 있었음.
- 구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거절로 인하여 큰 좌절을 경험하며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고 집에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점차 사회와 단절하게 되었음
-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게임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2) L군과 K군의 공통된 고민

- L군은 2년, K군은 5년간이 은둔생활이 지속되었으나 이들 모두 은둔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고민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장래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함.
-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단절되어 세상과 멀어지고있는 것 같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딜레마를 겪었다고 함.

3)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 했던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

- 먼저 청년디지털일자리를 경험하며 성장을 경험한 학교밖 청소년 출신의 J군은 친구 L군이 집에서만 생활하며 사회와 단절되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L군에게 청년디지털 일자리 과정에 참여하기를 적극 추천
- 과거 K군의 고등검정고시를 도왔던 은사는 K군이 게임을 좋아하고 컴퓨터로 하는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K군에게 디지털일자리과정에 참여하기를 추천하게 되었음
- K군과 L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디지털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자발적으로는 사회로 나오기가 불가능 하였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음.

□ 성장 과정과 효과성

- ◆ 지적장애 3급 판단을 받은 L군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일반청년들이 포함된 30명 내에서도 우수한 작업결과물을 만들어내며 현재 IT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준비에 들어감
- ◆ K군의 경우 3개월간 작업한 결과물에 대하여 가장 우수한 평가받고 현재 상위레벨인 검수자로 승급하여 관리자그룹에서 업무 수행 중.
- ➔ **은둔형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향이 디지털업무를 수행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을 확인**

1) 초기 (1개월 ~ 3개월)

● 업무파악 및 적응단계

- 최초 디지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스킬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반복적인 업무를 통하여 디지털업무가 익숙해지는 과정

●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지속적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 사업에 참여한 은둔형 청소년들의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핵심요소중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상담사가 디지털사업에 함께 투입되어 은둔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주2회 대면상담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도록 하였음

➔ L군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관리할수 있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 메타버스(게더타운, 제패토)를 활용한 상담의 경우 은둔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모두 동시에 참여하여 집단상담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각자의 부캐릭터로 가상 세계에 입장하여 상담에 참여

※ 특히, 디지털환경과 익숙한 은둔청소년들의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즐거워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추후 마인크래프트(게임)를 활용한 가상세계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음.

2) 중기 (4개월 ~ 6개월)

● 소통을 통한 대인 관계역량 강화

- 팀별로 디지털업무를 수행하며 팀원들과의 소통 必
- 초반에는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업무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팀원의 의견이 조율되어 사업에 반영되는 경험을 하며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게 됨
- 4개월차에 접어들었을 때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은둔형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역량이 대폭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동기부여

- 4개월차로 접어들었을 때 은둔형 청소년들은 디지털업무에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며 업무에 완벽하게 적응하였고, L군과 K군 모두 디지털업무가 자신의 적성에 적합함을 느끼게 되었음
- 작업결과에 대한 상급자 및 주변의 인정을 통해 업무에 자신감을 얻으며 동기부여를 얻게 됨.

3) 후기 (7개월 이상)

- **노력에대한 보상과 성취감을 통한 성장**

- L군의 경우 디지털 초급자 과정을 거치며 성과를 인정받고 IT개발 전문기업으로 인턴제안을 받게 되었음
- K군의 경우 전체 인원중 가장 우수한 인력중 1명으로 평가 받고 현재 B2B 사업팀에서 상위레벨인 검수자로 승급하며 급여가 인상되었음.

- **책임을 동반한 적극적 참여자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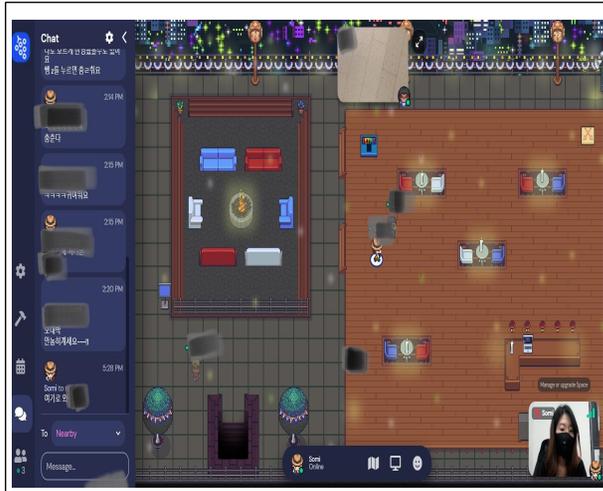
- L군의 경우 주변인들과 대화에 참여도 점심식사도 늘 혼자였으나 현재 초기와 중기의 단계를 거치며 성장을 경험하며 주변동료들과 관계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 K군은 팀에 할당된 업무와 팀원들의 업무속도를 직접 조율해야 하는 관리자로 승급하며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 되었음.

- **지속가능한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4) 제언

갑자기 찾아온 COVID-19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혼란과 뉴노멀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의 현장에서도 급속한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상담-교육-자립과정이 지역사회 삶의 현장에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송파에서 35명의 청년들이 디지털정비사업을 매개로 자립기반을 구축을 실험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도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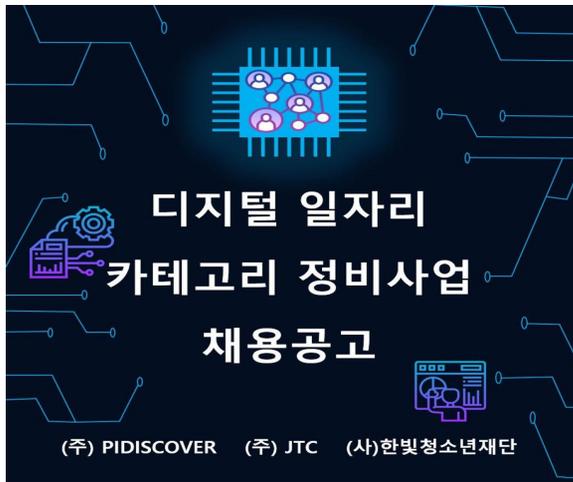
□ 참고자료



메타버스(게더타운)을 활용한
집단상담 진행



메타버스(제페토)를 활용한
부캐릭터 만들기



지역기반 공공기관, 중소기업, 청소년재단 간 협업을 통한
디지털 일자리창출 및 채용공고



KOTRA 디지털 무역팀 현장방문 및 바이코리아 무역
플랫폼사업 전문교육실시



미래교육센터오금HUB 內
KOTRA 무역플랫폼 구축 사무실 전경1



미래교육센터오금HUB 內
KOTRA 무역플랫폼 구축 사무실 전경2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

토론문 제목: 뉴노멀 시대 고위기청소년 관리 시스템 및 비대면 상담 환경 구축

소속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성명 최 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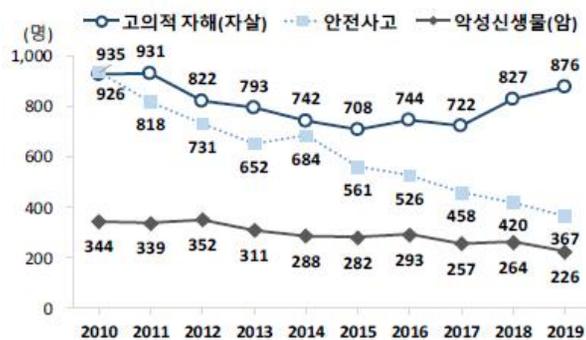
□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 (청소년 자해·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심각)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특히 최근 자해 청소년 급증하고 있음.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으나, 10년 이후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자살예방백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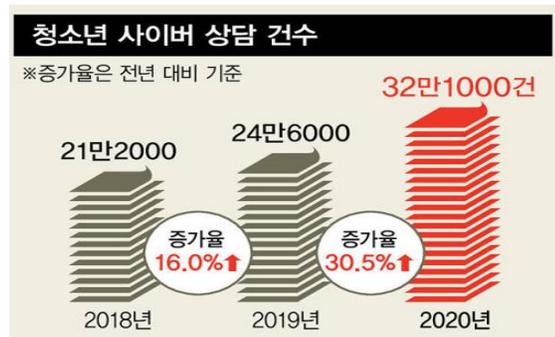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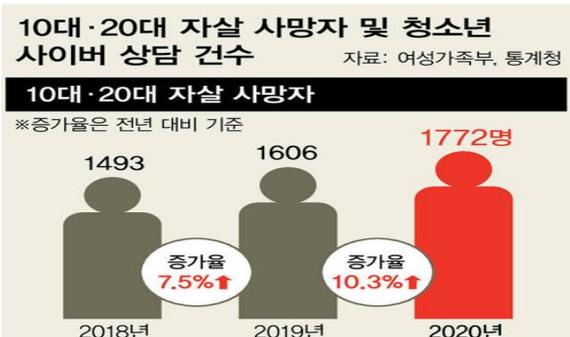
< 청소년 자살 시도율(단위%) >



<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



-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0년 1만3018명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10·20대는 10.3%로 증가하여 전체 자살 비중의 10·20대가 차지하는 자살사망 비율은 2019년 11.6%에서 2020년 13.6%로 2%포인트 증가.
-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버상담도 78.6% 증가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청소년이 겪는 주된 감정으로 불안·걱정이 53.2%로 가장 컸고, 짜증(39.3%), 우울(30.2%), 두려움(18.5%) 순으로 나타남.
- 반대로 감사(4.8%)·평온(4.4%)·관심(3.6%) 등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청소년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비자살적 자해가 급증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감을 증가 시키고 있음.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해인증샷, 자해 자살송 등이 유행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의 대처 양식으로 비자살적 자해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전반에 걸친 심리건강의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음.
- 자해행동은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자살적 의도는 없으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찾기 전에는 지속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자해의 발병 시기는 초기 청소년인 12~13세로 청소년의 위기도가 자연영화되고 있음.

〈연도별 자살 학생 중 자해·자살시도(1년 이내) 여부 현황(2016~2019)〉

구분	2016	2017	2018	2019
자해시도	3.2%(3건)	5.0%(5건)	15%(18건)	23.9%(27건)
자살시도	6.8%(6건)	5.0%(5건)	5%(6건)	14%(14건)



○ (코로나 이후 청소년 자살동향)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며 자유의지가 아닌 강제적 멈춤 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특히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고통에 방치되거나 부정적 정서 표출 등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큼.



- (발생 시기) 원격·등교 수업의 영향으로 3~4월에서 6~7월 학생 자살 급증.
- (현황 파악 어려움) 비대면 원격 수업의 영향으로 학생 파악의 어려움 증가.
- (발생요인, 장소) 가정 불화 원인의 증가, 사안발생장소 자택 증가.
- (코로나19 관련) 최근 5년 대비 월별 누적 평균 증가 추세.(교육부)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대한 제도와 체계 마련

○ 현재 트라우마 관련 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본조신설 2018. 6. 12.]'이 유일함. 기존 법체계로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체

계를 구성하고,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높은 파급력을 가진 청소년의 외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여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 및 시스템 마련 시급.

□ 청소년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 **고위기 대응 시스템 부재** 청소년의 자살사망사건 이후 지역사회의 긴급대응은 각 기관의 분절적 대응으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청소년 투신자살을 목격한 한 지역주민, 같은 학교 학생, 학부모, 소식을 접한 지역시민 등 한 청소년의 자살사건에 관련되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몇 천 명에 이를 수 있음. 그러나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은 학교 내 같은 반, 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질 뿐 다른 영역은 그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자살사망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엔 모방 자살이 높은 비율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영역임. 실제 2~3주 후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자녀의 자살 위기를 호소하는 상담 전화가 발생하였음.
-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분당 서현고 고등학생 실종→사망사건(2021.6.28.)처럼 학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자살 전 고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부재와 같이 청소년기의 발달 위기 상황에서 일상생활 중 개입할 수 있는 심리상담지원체계가 절실함. 현재 학교 내 전문상담사 1인이 배치(교육부 Wee클래스)되어 있고,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심리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 할 시스템이 없이 문제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찾게 하는 시스템으로 일상 스트레스 상황에 상담실접근의 한계가 있음. 또한, 두 기관 모두 심리적상담지원을 해야 하는 청소년 인구수 대비 현저하게 낮은 상담사 비율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큼.

○ 자살·자해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고위기 전담 청소년안전망 구축

- 청소년 자살·자해 사건 발생 시 지역 내 긴급대응체계가동 및 컨트롤 타워 기능 확보
- 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긴급대응에 관한 단일화 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 대응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일화 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 조례 및 규칙 필요

○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설

- 청소년 인구 대비 상담복지센터 증설 : 현행 지자체별 1개소 운영 또는 필요에 의한 분소를 두고 있으나, 청소년 심리지원의 완결적 구조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 인구수 대비 현실적인 전문상담사 배치 및 센터 증설이 필요함.

□ 청소년의 안전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건립

○ 열악한 청소년상담 및 복지 환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설치기준 미비로 인해 단독건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잦은 이사, 타 기관 입주로 인한 내담자 비밀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청소년들의 상담센터 접근에 어려움을 야기함.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해당 사업목적으로 건립된 센터가 7개소에 불과(전체 2%)
- 시설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다수 발생)

□ 비대면 상담 환경 구축

- 메타버스는 기술 수준, 사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 화상상담 시 우려되는 비밀보장 문제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안 마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별적 접근이 아닌 여성가족부 중심의 화상상담 전용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적 차별 완화.
 - 청소년지도자들의 다양한 디지털 역량 교육 기회 제공.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